



국립광주박물관의 '불서로 보는 스님의 일상'전이 12월 17일 개막됐다.

불서로 보는 스님의 일상

국립광주박물관, 내년 2월 17일까지 특별전시회

불서에서는 스님의 일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불서를 통해 스님의 일상을 들여다본 전시회가 열려 화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에서 마련한 '불서로 본 스님의 일상' 특별전이 12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08년 2월 17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새벽 도량식으로 시작하는 '산사의 하루'와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스님들의 삶'을 사진과 글, 도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시회에 있는 불교도서 연구가 김민영씨가 소장하고 있는 <원각경>보물 제1518호를 비롯한 희귀 불서 100여 점과 송광사, 백양사, 대흥사, 선암사 등 남도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서와 율품들이 함께 소개돼 사찰과 스님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17일 열린 개막식에는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성보문화재단연구원 총재 석정 스님, 장성 백양사 주지 성호 스님, 광주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정인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현종 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님들의 일상과 수행생활 등을 일반인에게 소개하고자 특별전을 마련했다"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선지식들의 향훈을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석정 스님도 축사에서 "스님들의 오랜 수행 흔적을 담은 책과 글을 감상하면서 불교문화에 대한 안목과 마음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부하는 마음을 갖고 관람하기를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시방세계에 佛音 울려 퍼지길...”

창단 20주년 기념 음악회 여는 삼광사 화엄합창단

부산 지역 불음(佛音) 포교에 앞장서온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 화엄합창단(단장 옥정숙)이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았다. 1987년 창단한 화엄합창단은 천태합창제에서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고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꾸준히 음성공양을 올려온 화엄합창단은 삼광사 뿐 아니라 봉축행사를 비롯해 칠석제, 동지예술회, 부산불교연합회 창제 등 전국적인 활동을 통해 부산지역 불교합창단의 선두주자로 인가몰이를 하고 있다.



창단 20주년을 맞은 화엄합창단은 이제 삼광사를 지탱하는 한 기둥으로 성장했다.

음성공양과 봉사활동을 원만히 해내며 삼광사의 큰 기둥이 된 화엄합창단. 사찰합창단 운영의 모범 사례로 뽑히는 화엄합창단 성공비결은 뭘까. 12월 18일, 20주년 기념 발표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화엄합창단을 찾았다.

화엄합창단은 20주년 생일을 맞아 12월 27일 7시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릴 '창단 20주년 기념 합창제' 연습으로 열기에 가득 차 있었다. 그 열기 속에서 화엄합창단이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인 그들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월등한 실력을 자랑한 밑바탕은 능력 있는 지도자 영인에서부터 시작됐다. 신심과 실력, 지도력의 삼박자를 결미한 김화정 교수(인제대)를 초빙했다.

이태리 베르디국립음악원에서 10년을 유학한 김화정 교수는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다. 화엄합창단을 맡은 김 교수는 창작전불가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찬불가를 통한 포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훌륭한 지휘자의 지도아래 단원들은 엄격한 자기관리로 무장했다. 법회 뿐 아니라 아주 작은 모임에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단정함으로 정성을 다했다. 액세서리 사용은 일체 금지했고 머리 스타일과 복장도 엄격하게 관리했다. 단원들은 "우리가 삼광사 얼굴"이

라는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화엄합창단이 성공한 또 다른 요인은 '단합'이다. 합창단 총무를 역임하고 있는 김수정씨는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지스님께서 직접 한 달에 한 번 합창단원들을 진두지휘해 등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합창단 등산모임으로 단원들은 추억도 만들고 어려운 등반 코스에서 협동을 배웠다. 서로 힘이 되며 돈독한 대화가 오고간 그 시간이 가족 같은 끈끈한 정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서로를 위한 마음은

매주 화요일 정기연습시간에 참석 인원을 꾸준히 늘려주고 풍족한 대성공양이 마련되는 등 합창단원들이 결속력을 모으는 요인이 됐다. 합창단원을 위한 등반 모임은 그 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불교에 관심이 없던 단원가족들도 동참하는 포교의 장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화엄합창단의 저력은 사찰 곳곳에서 발휘한 '봉사 정신'이다. 일선에서 서서 열심히 활동한 그들의 손길은 단원 스스로에게 보람으로, 기쁨으로 돌아왔다.

"한글을 못 배우신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고 삼광한글학교를 졸업할 때 순수한 축하의 의미로 음성공양을 올렸어요. 그때 느낀 뜨거운 보람은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죠. 행사의 크고 작음을 떠나 보람을 찾을 때 가장 기쁘요. 부처님께 올린 음성 공양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 돌아 온 것이라고 여겨요." 합창단원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봉춘 부장은 음성 공양은 단지 음(聲)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강조했다. 화엄합창단의 노래는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기쁨이 된 것이다.

"창단 20주년 기념 합창제"를 앞두고 있는 옥정숙 단장은 "저를 이끄는 한해 끝자락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올리는 음성공양의 공덕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구석에 부처님 광명 비추기를 바란다"며 화엄합창단이 노래하는 의미를 설명했다. (051)808-7111 하성미 기자

연말 음악회 2題

‘佛法 전하는 은발의 하모니’

홍법사 실버 '청솔합창단' 창단음악회

‘오빠’ 부대가 아닌 ‘할머니’ 부대가 음악회장에 나타났다. 곡이 끝날 때마다 ‘할머니’를 연호하는 목소리가 정겹다. 홍법사(주지 심신) '청솔합창단' 창단음악회 무대에 선 할머니 단원들에게 보내는 손자 손녀들의 응원 소리였다. 12월 13일 부산금정문화회관대강당에서 '청솔합창단'의 창단 음악회가 열렸다. 6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뒤편에 들어찬 대강당에는 곱게 차려입은 청솔합창단이 한마음으로 노래하는 찬불가가 울려 퍼졌다. 객석에 앉은 스님도 불자들도 감동의 박수를 아끼없이 선사했다. 청솔합창단이 눈길을 끄는 것은 '실버합창단'이라는 점이다. 평균 나이 65세인 청솔합창단은 50명의 단원들이 푹푹 풍쳐 음성공양을 아낌 없이 무대에 펼쳐 놓았다. 음성공양을 통한 불음 행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으로 청솔합창단은 홍법사 행사 참여는 물론 복지회관, 병원, 양로원, 교도소 등을 방문하고 연주 및 봉사 그리고 불음으로 포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자비정신’ 담은 고운 선율

진각종 금강회 심인합창단 자선음악회

진각종 총 금강회 대전지부(부부장 원산)가 창종 60주년 및 창단 10주년 기념으로 12월 14일 대전 연경국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심인합창단 복지기금 마련 자선음악회를 개최했다.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한 이날 음악회는 대전 국군 간호 사관학교 호국약천사 보리회합창단이 '작은 마음에 노래' '슬픔에게' '내 마음의 부처'를 음성공양 한데 이어 심인합창단이 무대를 장식했다. 심인합창단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불공을 마치며' '눈물로 비 읊는다' '항수' '나무관세음보살' '좋은 날' '꽃밭 만나고 온 날'을 고운 음색에 담아 선사했다. 초대가수로는 소프라노 민진기씨가 '내 맘의 강물' 등 4곡을 열창했다.

심인합창단 지도스승 현수 정사는 "새로운 지휘자에 불자 류성욱씨를 영입한 후 음색이 부드러워지고 있다"며 "합창단의 노고와 자리를 함께한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드리며 복지성금 모금에 많은 불자들의 힘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새해도 익산불교 발전 이어갈 것”

익산불교신도연합회 '익산불교의 밤' 개최



익산불교신도연합회 박준근 회장(왼쪽)이 이한수 익산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준근)가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지광, 승법사 주지)의 후원으로 12월 15일 알리앙스웨딩홀에서 '익산불교의 밤'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비롯한 익산 사암스님들과 지역 불자 800여명이 함께한 이날 불교인의 밤은 정해진 한해동안 수행과 포교, 복지, 자원봉사 분야

에서 힘쓴 지역불자들을 위로하고 내년 무자년 한해 익산불교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암연합회 회장 지광 스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생활불교를 실천하자"며 "익산불교의 부흥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익산지역의 불교 발전을 위해 애쓴 불자들을 칭찬하고 "이러한 힘을 한데 모아 사회에 회향하는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김완주 전북도지사, 이한수 익산시장,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비롯한 조배숙 국회의원, 시도의회의원 등이 참석해 이구동성으로 "익산불교의 위상을 일깨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준근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세달라며 이한수 익산시장에게 지역불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또 각 분야의 모범불자들에게는 상장과 작은 선물이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성사 새해 범종개방 행사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가 2008년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 대성사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범종을 개방한다. 내년 1월 1일 열리는 '새해맞이 범종 개방과 나눔의 행사'에 참여하면 범종을 직접 칠 수 있다. 12월 31일 오후 9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의 '새해를 맞는 우리의 각오' 법문으로 시작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소지 태우고 소원 빌기'를 통해 가족의 안녕을 한데 모아 사회에 회향하는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김완주 전북도지사, 이한수 익산시장,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비롯한 조배숙 국회의원, 시도의회의원 등이 참석해 이구동성으로 "익산불교의 위상을 일깨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준근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세달라며 이한수 익산시장에게 지역불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또 각 분야의 모범불자들에게는 상장과 작은 선물이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편 대성사는 '여름 옷 캄보디아 발전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각급 기관장들이 지역 불교행사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달라진 익산불교의 위상을 일깨웠다. 한편 박준근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세달라며 이한수 익산시장에게 지역불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또 각 분야의 모범불자들에게는 상장과 작은 선물이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경전연구회 담양 용화사서 첫 강좌

광주·전남 스님 30여명 참여...6개월간 <금강경> 공부 등 진행



경전연구회 회장 수진 스님(용화사 주지)이 지역스님들과 함께 경전공부에 나섰다.

대통령 선거 투표가 한창인 12월 19일 오후 2시 일찍 투표를 마친 스님들이 담양 용화사 강당에 모였다. 각 사암에서 포교에 정진중인 스님들의 공부모임인 경전연구회(회장 수진)가 12월 5일 발족해 19일

그 첫번째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태고종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은 19일 용화사 강당에서 암도 큰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과 응각 스님(前 불국사 강주) 등을 모시고, 광주·전남지역 사찰 스님 30여 분과 함께 경전공부를 시작했다.

경전연구회는 이날 서울 금강선원 총재 한정섭 법사의 부처님일생 강의를 시작으로 6개월간 응각 스님의 <금강경>과 여러 대승경전을 공부할 계획이다.

경전연구회 회장 수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재가신자들은 다양한 공부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사찰스님을 맡은 스님들의 재교육은 쉽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기회를 만들게 됐다"라며, "초발심으로 경전을 다시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동종 지운 승정원장 취임법회



대한불교 조동종 승정원장 덕주당 지운 큰스님 취임법회가 12월 18일에 조동종 총무원 도선사에서 봉행됐다. 조동종 승정원장 지운 스님, 중앙종회 의장 해륜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명 스님은 "종단의

목조선종 기풍에 모범적인 지표와 지도자가 되어 종단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지운 스님은 1960년 백연법회에는 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중앙종회 의장 해륜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명 스님은 "종단의

청문 경남남부지사장